



Unforeseen

MIMCA x KNCCDC Performance

2016 다원예술프로젝트
2016 Multi-Arts Project

예기치 않은 Unforeseen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내,외부 및 멀티프로젝트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Multi-Project Hall etc.

2016. 8. 17. – 10. 23.

고재욱
안데스
이태원
옥정호
조형준
김숙현 & 조혜정
진달래 & 박우혁
황수현
김누리연 & 전용완
김보라 & 김재덕
이재영
태이
김정선 & 마티아스 에리안

KOH Jae Wook
Andeath
LEE Tae Won
OAK Jung Ho
CHO Hyeong Jun
KIM Sook Hyun & CHO Hye Jeong
JIN Dallae & PARK Woo Hyuk
HWANG Soo Hyun
KIM Nui Yeon & JEON Yong Wan
KIM Bora & KIM Jae Duk
LEE Jae Young
Taey lohe
KIM Jung Sun & ERIAN Matthias

제작감독 김지명
무대감독 조은진
음향감독 오영훈

Production Manager KIM Jimyung
Stage Manager JO Eun Jin
Sound Engineer OH Young Hoon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무용단 퍼포먼스 : 예기치 않은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무용단 퍼포먼스: 예기치 않은» 프로젝트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다원예술프로젝트의 확장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현대무용단 두 기관의 공동 기획을 통해 장르간 교류와 실험의 기회를 확장하고, 다원예술의 형태로 장르와 형식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젊은 작가들의 행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번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현대무용단의 협업은 미술과 무용, 장르 사이의 이분법을 폐기하고 각자의 맥락에서 이탈하여 ‘예기치 않은’ 장면들을 만들어낸다. 신체의 한계, 관습적 공간 혹은 규정된 사고에서 벗어나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촉발되는 사건들을 퍼포먼스로 구현하며, 이를 통해 규제된 우연성(controlled chance), 비결정성(indeterminism), 불확정성(uncertainty) 또는 즉흥(improvisation) 등과 연결된 동시대 다원예술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아티스트 13인/팀이 ‘예기치 않은’이라는 부제 아래 미디어, 영상, 사운드, 설치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선보이는 이번 퍼포먼스 프로젝트는 동시대 예술의 화두인 ‘지속과 참여의 형식으로서 공연과 전시 사이의 긴장’을 들여다 보는 색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약 3개월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곳곳에서 진행될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무용단 퍼포먼스: 예기치 않은»은 전시 형태의 퍼포먼스에서 미술관에 들어온 무용, 즉흥적인 게릴라형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저마다의 예기치 않은 순간들을 마주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다원예술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MMCA × KNCDC Performance : Unforeseen

MMCA × KNCDC Performance: Unforeseen is an extension of the annual Multi-Arts Project organized b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This year the project is co-organized by MMCA and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KNCDC) to expand the experimentation and opportunity in the exchange between varying genres, and to accentuate the footsteps of young artist in their efforts to surpass the limitations of genre and form through interdisciplinary arts.

This collaborative project of MMCA and KNCDC creates the ‘unforeseen’ scenes discarding the dichotomy between genres of art and dance beyond each context. It intends to enlarge the horizons of contemporary interdisciplinary arts connected to controlled chance, indeterminism, uncertainty and improvisation etc. by actualizing the performances stirred amidst coincidence and inevitability, apart from the physical limitations, conventional space or regulated thoughts. This performance project of the 13 artists/teams based on collaboration among media, video, sound, and installation under the subtitle, ‘Unforeseen’ will provide an unconventional opportunity for the audience to peek into the ‘tension between performance and exhibition as forms of duration and participation’, which is one of the rising issues of contemporary art.

MMCA × KNCDC Performance: Unforeseen will be held for about three months in various places of MMCA, Seoul and it will be unfolded in diverse forms from exhibition-type performance to dance entering the museum to impromptu guerilla-type performance. This project is anticipated to impel the audiences to encounter each of their own unforeseen moments while witnessing the attraction of the infinitely evolving interdisciplinary arts.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4	15	16	17	18	19	20
			16:00-17:00 고재욱 <Die for> 멀티프로젝트홀	10:00-21:00 고재욱 *<Die for> 멀티프로젝트홀	10:00-21:00 고재욱 *<Die for> 멀티프로젝트홀	10:00-21:00 고재욱 *<Die for> 멀티프로젝트홀
			18:00-18:30 안데스 <시제웃 1> 1층 로비 및 공용공간			18:00-18:30 안데스 <시제웃 1> 1층 로비 및 공용공간
21	22	23	24	25	26	27
10:00-18:00 고재욱 *<Die for> 멀티프로젝트홀					16:00-17:10 이태원 <이라도 태평성대> 멀티프로젝트홀	16:00-17:10 이태원 <이라도 태평성대> 멀티프로젝트홀
28	29	30	31			
		14:00-14:05 육정호 <홀롱한 정신> 멀티프로젝트홀	14:00-14:05 육정호 <홀롱한 정신> 멀티프로젝트홀			

*해당일은 관객참여형 퍼포먼스로 운영됩니다.

*The respective dates are arranged in audience participatory performance.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추후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www.mmc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he schedule above may change according to museum circumstances.
Please visit the museum website(www.mmca.go.kr) for detailed information.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3
				11:00-11:50 조형준 <Over the wall> 1층 로비	14:00-14:05 육정호 <홀롱한 정신> 멀티프로젝트홀	14:00-14:05 육정호 <홀롱한 정신> 멀티프로젝트홀
				14:00-14:05 육정호 <홀롱한 정신> 멀티프로젝트홀	14:00-14:50 조형준 <Over the wall> 1층 로비	16:00-16:50 / 20:00-20:50 조형준 <Over the wall> 1층 로비
					17:00-17:30 안데스 <시체웃 2> 멀티프로젝트홀 중층	17:00-17:30 안데스 <시체웃 2> 멀티프로젝트홀 중층
						20:00-20:30 안데스 <시체웃 3> 미디어월
4	5	6	7	8	9	10
		17:00-18:00 육정호 <6470/1hr> 미디어월	17:00-18:00 육정호 <6470/1hr> 미디어월	17:00-18:00 육정호 <6470/1hr> 미디어월	10:00-18:00 김숙현&조혜정 <홀드 미> 미디어월	12:00-12:30 육정호 <미술관 무지개> 1층 로비 및 복도
					17:00-17:25 김숙현&조혜정 <Screens+action!> 멀티프로젝트홀	13:00-13:25/ 17:00-17:25 김숙현&조혜정 <Screens+action!> 멀티프로젝트홀
11	12	13	14	15	16	17
13:00-13:25/ 17:00-17:25 김숙현&조혜정 <Screens+action!> 멀티프로젝트홀			17:00-21:00 2016다원예술프로젝 트 연계 <몸+짓> 특별상영 미디어월			12:00-12:30 육정호 <미술관 무지개> 1층 로비 및 복도
						17:00-21:00 2016다원예술프로젝 트 연계 <몸+짓> 특별상영 미디어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8	19	20	21	22	23	24
		10:00-18:00 진달래&박우혁 **<움직이는 현재> 멀티프로젝트홀	19:00-19:20 진달래&박우혁 <움직이는 현재> 멀티프로젝트홀	10:00-18:00 진달래&박우혁 **<움직이는 현재> 멀티프로젝트홀	10:00-18:00 진달래&박우혁 **<움직이는 현재> 멀티프로젝트홀	12:00-12:30 육정호 <미술관 무지개> 1층 로비 및 복도
						19:00-19:20 진달래&박우혁 <움직이는 현재> 멀티프로젝트홀
						18:30-19:30 황수현 <I want to cry, but I'm not sad> 전시실 및 공용공간
25	26	27	28	29	30	
10:00-18:00 진달래&박우혁 **<움직이는 현재> 멀티프로젝트홀		16:00-16:20 김누연&전용완 <문학적으로 걷기> 1층 로비	18:30-19:30 황수현 <I want to cry, but I'm not sad> 전시실 및 공용공간	16:00-16:20 김누연&전용완 <문학적으로 걷기> 오실록	16:00-16:20 김누연&전용완 <문학적으로 걷기> 경복궁 마당	
			20:00-20:20 김누연&전용완 <문학적으로 걷기> 멀티프로젝트홀 중층			
<p>** 해당일은 별도의 퍼포먼스 공연이 없는 전시형 프로젝트로 운영됩니다.</p> <p>**The respective dates are arranged with exhibition form project without performance</p>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12:00-12:30 육정호 <미술관 무지개> 1층 로비 및 복도 16:00-16:20 김누연&전용완 <문학적으로 걷기> 전시실 5 앞 복도 18:30-19:30 황수현 <I want to cry, but I'm not sad> 전시실 및 공용공간
2	3 10:00-18:00 태이 *<잠물결> 멀티프로젝트홀 16:00-16:20 김누연&전용완 <문학적으로 걷기> 미디어월	4 10:00-18:00 태이 *<잠물결> 멀티프로젝트홀	5 10:00-18:00 태이 *<잠물결> 멀티프로젝트홀	6 10:00-18:00 태이 *<잠물결> 멀티프로젝트홀	7 16:00-16:15 태이 <잠물결> 멀티프로젝트홀	8 16:00-16:15 태이 <잠물결> 멀티프로젝트홀
			19:30-20:30 김보라&김재덕 <꼬리언어학> <Breathing Attack> 전시실 5 앞	16:30-17:30 김보라&김재덕 <꼬리언어학> <Breathing Attack> 전시실 5 앞	17:00-18:00 김보라 <해락의 정원> 선큰가든	
9 10:00-18:00 태이 *<잠물결> 멀티프로젝트홀	10	11	12 18:00-19:00 이재영 <디너> 선큰가든	13	14 16:00-17:00 이재영 <디너> 선큰가든	15 18:00-19:00 이재영 <디너> 선큰가든
16 16:00-16:50 김누연&전용완 <문학적으로 걷기> 멀티프로젝트홀	17	18	19	20	21 12:00-12:45 14:30-15:15 16:30-17:15 김정선&마티아스 에리안 <풍경 없는 지역> 멀티프로젝트홀 및 중층, 선큰가든	22 12:00-12:45 14:30-15:15 16:30-17:15 김정선&마티아스 에리안 <풍경 없는 지역> 멀티프로젝트홀 및 중층, 선큰가든
23 12:00-12:45 14:30-15:15 16:30-17:15 김정선&마티아스 에리안 <풍경 없는 지역> 멀티프로젝트홀 및 중층, 선큰가든					*해당일은 관객참여형 퍼포먼스로 운영됩니다. *The respective dates are arranged in audience participatory performance.	

고재욱

고재욱은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며 개인의 감정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이러한 현상이 다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각예술가이다. 또한 이를 드러내거나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며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송은아트큐브 «Room Sweet Room»(2015), 동대문 옥상천국 DRP «RENTABLE HOUSE»(2015), 공간해방, 오펜지연필, 반지하, 가우스, 서교예술실험센터 «RENTABLE ROOM»(2014), 서교예술실험센터 «Never Let Me Go»(2013) 등 다섯 차례의 개인전을 비롯해 다수의 단체전 등에 참여했다.

〈다이 포〉, 2016

〈다이 포〉는 반 거울로 만들어진 유리로 구성된 큐브로 1인 노래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큐브 내부의 노래 부르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자기 자신의 모습밖에 볼 수 없다. 자신을 타인에게 드러내고자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모습밖에 확인할 수 없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심리를 관객 참여 형태의 설치작품으로 선보인다.

구성, 연출: 고재욱
오프닝 공연: 최고은

KOH Jae Wook

KOH Jae wook is a visual artist who works with in-depth interest in the sentiments of individuals living within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ncidents occurring withi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ociety and how the respective phenomena influences the individual lives again. To reveal or solve this, he is working on number of audience participatory projects and various experimentations. His major activities include five solo exhibitions, “Room Sweet Room”(2015) at SongEun Art Cube, “RENTABLE HOUSE”(2015) at Dongdaemun Rooftop Paradise, “RENTABLE ROOM”(2014) at Space Haebang, Orange Pencil, Vanziha, Gauss and Seoul Art Space SEOGYO, “Never Let Me Go”(2013) at Seoul Art Space SEOGYO and various other group exhibitions.

Die for, 2016

Die for is a cube composed with glass made of half mirror and it takes the form of a one person karaoke room. From the outside, we could see the person singing inside, but from the inside the person singing could only see oneself. This is an audience participatory installation displaying the mentality of the young generation today, where one attempts to reveal oneself to the others, but he or she is only able to confirm his or her own image at the end.

Concept, Direction: KOH Jae Wook
Opening performance: CHOI Gonne

안데스

안데스는 (주)쌈지 아트디렉터를 역임하였고, 얼터너티브 동요그룹 부추라마의 멤버로 활동했다. 매일 자신의 착장을 기록하는 데일리코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입던 옷으로 패션쇼를 열거나, 관객들에게 강제로 의상코디를 해주는 파티를 벌이기도 했다. 안데스는 직접 기증형 옷가게를 차려서 헌 옷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등 퍼포먼스 기반의 작업을 하고 있다.

〈시체옷 1〉, 〈시체옷 2〉, 〈시체옷 3〉, 2016

남포동이나 황학동 등지에서 헌 옷을 사입으며 헌 옷의 출처에 늘 관심을 가져왔던 안데스는 2014년에 기증형 옷가게 ‘덤스터’를 차리고 헌 옷을 사고 팔면서 헌 옷의 이동경로를 데이터화했다. 〈시체옷〉 시리즈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헌 옷의 이동패턴을 분석하는 한편, 헌 옷과의 인터뷰를 통해 옷이 버려진 사연을 직접 들어본다. 작가는 〈시체옷〉 퍼포먼스를 통해 헌 옷이 넘쳐나게 된 의류시장의 구조를 확인하고, 넘쳐나는 헌 옷을 둘러싼 불투명한 유통 흐름을 추적하는 등 정신 없이 돌아가는 유행의 그늘에서 바라본 지금의 현실을 담는다.

제작, 연출: 안데스
조연출: 최윤석
음악: 지미 세르
사물제작: 다이애나 밴드
안무: 이소영
출연: 김세은, 김승록, 박한결, 이소정, 윤원혜, 장홍석, 최규태, 허윤경, 최원준, 이유진

Andeath

Andeath was the Art Director of SSAMJI Art Space and a member of Boochoolaamaa, which is an alternative children’s song group. Andeath has a website that records daily outfit of the day, holds a fashion show with those outfits and opened a party to style the outfits of the visitors by force. The artist works on the performative basis by opening a donated clothing store to track the moving route of used clothes.

Sicheot 1, *Sicheot 2*, *Sicheot 3*, 2016

Andeath has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 origin of used clothes as the artist bought used clothes from Nampo-dong or Hwanghak-dong. Andeath opened a donated clothing store in 2014 named, ‘Dumpster’, sold and bought used clothes and organized the movement route of used clothes into data. The *Sicheot* series analyzes the moving pattern of used clothes based on this data and listens to the story of abandoned clothes by interviewing the used clothes. Andeath confirms the structure of clothing market, overflowing with used clothes through the *Sicheot* performances, traces the opaque distribution flow of the inundating used clothes and thereby captures the current reality seen from the shade of hectic trend.

Concept, Direction: Andeath
Assistant Direction: CHOI Yoon Suk
Music: SERT Jimmy
Object Design: Daiana Band
Choreography: LEE So Young
Performance: KIM Se Eun, KIM Seung Rok, PARK Han Kyul, LEE So Jeong, YOON Won Hye, JANG Hong Seok, CHOI Kyu Tae, HUR Yun Kyung, CHOI Won Jun, LEE You Jin

이태원

이태원은 2005년부터 음악동인 ‘고몰’과 함께 조선음악유산의 문법을 통한 음악적 언어의 장에서 벌어지는 미시정치적, 거시정치적, 현실정치적 폭력들을 주제로 공연을 해왔다. 암묵적으로 승인되고 합의된 지점에 담론적, 음악적으로 끊임없이 긴장을 가하는 그의 작업은 ‘무대화한 다큐멘터리’의 형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라도 태평성대〉, 2016

이태원과 음악동인 ‘고몰’이 이 공연에서 갖고 노는 과거는 가곡이라고도 불리는 갖가지 시조들이다. 시조(時調, contemporary tune)는 현재의 노래라는 이름을 가진 고물 노래이다. 그 중 태평가를 모티브로, 태평성대라는 고대의 이름을 가진 현재들, 가짜 현재인 과거들과의 불화에 마주한다. 고대의 모조품을 과소비함으로써 위악적으로 표시했던 태평가는 과거라는 이름을 달고 미래만이 가능한 노래이다. 이 공연은 마치 러시아인 인형이 끝없이 더 작은 껍데기로 들어가듯 끝 모르는 외부로 탈출해야 했던, 그러나 가위눌린 꿈처럼 나가고 나가고 언제나 제자리였던 시조를 닮아간다.

이라도 太平聖代 저라도 聖代로다
堯之日月이요 舜之乾坤이로다
우리도 太平聖代니 놀고 놀려 하노라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LEE Tae Won

LEE Tae Won has performed with themes of micro-political, macro-political, and realistic political violence occurring within the stage of musical language of the Joseon music heritage with a musical coterie, ‘Gomool’ since 2005. His work is constantly intensified controversially and musical-ly at a silently authorized and agreed convention and it continues to unravel in the form of ‘staged documentary’.

It says that now is the time of peace and joy, 2016

The past played the fool with LEE Tae Won and musical coterie, ‘Gomool’ are various sijo poems referred to as songs. Sijo (contemporary tune) is the song of the past with the title of song of the present. Amidst this, they took motif from a song of peace, facing the present with the ancient name of peaceful reign and the fake present of the past. The song of peace, which was expressed sarcastically by the excessive consumption of the ancient imitation, was a song only possible for the future with the name of the past. This performance mirrors sijo, which had to escape to the exterior without an end like the Russian Matryoshka doll, but always in the same position like recurring dream.

Either way it is the reign of peace and the age of prosperity
It is the highest days and months and heaven and earth without any trouble
It is also the piping times of peace for us that we play and play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옥정호

옥정호는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진, 영상 작가이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한국사회의 현실과 일상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이물감’에 관한 것들이다. 6회의 개인전과 40여 회의 기획, 단체전 등에 참여했으며, 2016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트 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국제사진축제에 참가 중이다.

〈홀륭한 정신〉, 2016 〈6470/1hr〉, 2016

〈홀륭한 정신〉 시리즈는 ‘헛된 비극의 제스처’와 ‘헛된 희극의 제스처’이다. 이러한 제스처가 드러내는 것은 이 ‘세계의 비참’을 비참으로 증언할 수 없는 것에서 비롯된 그것에 대한 ‘영성한 흉내’이다.

〈미술관 무지개〉, 2016

무지개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지개의 이미지에 대해 저마다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미술관에서 맞닥뜨리는 무지개는 어떤 모습일까? 아름다울 수도, 불쾌할 수도, 허무할 수도 있다. 옥정호의 〈미술관 무지개〉는 ‘소소한 소동’이다.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OAK Jung Ho

OAK Jung Ho is an artist who mainly works with photography and video based on performance. His primary interest is on the ‘inconvenient feeling of irritation’ sensed within the reality and everyday life of the Korean society. He had participated in 6 solo exhibitions, about 40 group and special exhibitions, and he is currently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organized by the Novosibirsk Art Museum in Russia.

The Noble Sprit, 2016 6470/1hr, 2016

The Noble Sprit series are ‘gesture of idle tragedy’ and ‘gesture of idle comedy’. Such gestures unveil the ‘cursory imitation’ originated from the unjustifiable ‘misery of the world’.

Museum Rainbow, 2016

Rainbow carries various significances. And people tend to invest each of their own significances. What would a rainbow encountered in the museum seem like? It may be beautiful, unpleasant, or futile. The *Museum Rainbow* of OAK Jung Ho is a ‘trivial labor’.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이태원, 음악감독, 연출: 이태원
출연: 음악동인고몰(고진호, 김솔미, 배승빈, 홍상진, 홍예진), 안이호, 이유경
영상디자인: 오재우
영상매니저: 손주영
음향감독: 오영훈

조형준

안무가 조형준은 건축가 손민선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뭉’을 통해 움직임, 공간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탐색해왔다. <좌표화된 로비>(2013), <돌이 된 순간*Di·a·meter>(2015) 등의 작품과 같이 ‘로비·바닥’, ‘공간·기하학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고, 우리가 디디고 서있는 수평면에 사물과 사람이 물리적으로 배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과 안무, 심리적인 거리에 대한 실험을 시도한다.

<오버 더 월>, 2016

<오버 더 월>은 ‘벽’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하여 신체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지각에 대한 퍼포먼스이다. 공간은 그 자체로 물리적 속성을 지니지만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공간을 사용하는 존재를 지각할 때이다. 이러한 공간적 지각은 우선 건축적 실체와 관계를 맺게 되며, 개인적인 맥락에 놓일 때 발생한다. ‘오버(over)’라는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이면서, 상태와 관계에 대한 여러 의미와 운동성을 부여한다.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벽 앞에 놓이는 것을 시작으로 경험, 사건 등에 의하여 지각되고 표출되는 현상에 집중하고자 한다.

안무, 연출: 조형준
공간연출: 손민선
음악: 백현진
드라마투르기: 김상숙
출연: 김서윤, 한아름, 조형준

CHO Hyeong Jun

Choreographer CHO Hyeong Jun and architect, SON Min Sun collaborated for the project, ‘[mu:p]’ to structurally explore the relationship of space and movement. The performances like *Co-ordinated Lobby*(2013) and *The moment of Being Two*Di·a·meter*(2015), precedes analysis on ‘lobby-floor’ and ‘space-geographical element’, and attempts an experiment on the space, choreography and psychological distance occurring according to the physical juxtaposition of human and object upon the horizontal plane we stand on.

Over the wall, 2016

Over the wall begins with an exploration of the ‘wall’ as a performance on space perception arranged with movement of the body. Space carries physical attributes in itself but gains significance as the space when it perceives the existence, which uses that space. Such perception of the space establishes relationship with the architectural substance and occurs when it is placed in a personal context. The preposition, ‘over’ is used before the noun, investing various significances and mobility on status and relationship. Initiating from being placed in front of the wall as physical substance, it intends to pay attention to the phenomenon of perception and expression through experience and incident.

Choreography, Direction: CHO Hyeong Jun
Space Design: SON Min Sun
Music: BEK Hyun Jin
Dramaturgy: KIM Sang Sook
Performance: KIM Seo Youn, HAN Aha Reum, CHO Hyeong Jun

김숙현 & 조혜정

김숙현은 철학과 사회학, 영화를 공부했다. 2005년 <우주공허>를 필두로 <모던한 쥐선생과의 대화>(2007), <죽은 개를 찾아서>(2010) 등의 유연한 형식의 실험영화를 제작해 국내외의 영화제에 참여하고, 또 수상하기도 했다. <감정의 시대: 서비스 노동의 관계미학>(2014)과 <너는, 어디에도 없을 거야>(2016) 등의 작업을 통해 영상을 댄스 및 퍼포먼스와 결합해 확장해가는 방식에 대해 고민 중에 있다. 조혜정은 서양화와 프린트 미디어를 전공하였다. 2000년부터 꾸준히 여성, 정치, 문화에 관한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영상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스크린+액션!>, 2016

<스크린+액션!>는 무용수의 몸을 다양한 스크린 안에서 시간적으로 배치하고 구성하는 작품이다. 스크린 안의 시간은 과거 서구의 전통적 시간 개념에 기대어 있는 것으로, 비연속적이며 분절가능하고, 가역적인 것으로 상정되어 인간의 사고로 조작 가능한 일차원적 공간으로 평면화한다. 하지만 실제의 시간은 연속적이고 비가역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논리적 사고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흐름 속에서 다면성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무대 위의 퍼포먼스 시간은 실제 시간을 보여준다. 인간의 몸과 그것의 움직임은 공간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매 순간 변이하고 독특한 리듬을 형성한다. 또한 절대 동일하게 복사, 반복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스크린과 퍼포먼스의 시·공간 결합과 이탈은 관객들의 주관적인 시·공간에 대한 경험과 감각의 극적인 확장을 가져온다.

구성, 연출: 김숙현 & 조혜정
안무: 김성현
출연: 김성현, 김영채, 전우상, 정록이, 유승민

KIM Sook Hyun & CHO Hye Jeong

KIM Sook Hyun had studied philosophy, sociology and cinema. KIM had produced experimental film in flexible form including, *Cosmic Emptiness*(2005), *The Conversation with Dr. Mouse*(2007), *Searching for Dead Dogs*(2010) and etc. and won several awards as well. KIM is in contemplation with the expanding method of combining performance, dance and video through works, *The Emotional Society on Stage*(2014) and *You'd be nowhere*(2016). CHO Hye Jeong had majored Western painting and print media. CHO has been constantly working on video works that suggest critical perspective on women, politics and culture since 2000.

Screens+action!, 2016

Screens+action! is a work visually composing and juxtaposing the body of a dancer in various screens. The time inside the screen relies on the Western traditional concept of time from the past, which is capable of discontinuous segmentation, postulated as reversible and surfacing the one-dimensional space with possibility to fabricate as accident. However, real time is continuous and irreversible holding multiple aspects in the flow indifferent to men’s logical thinking. Likewise, the time of performance on stage also displays real time. The human body and its movement are influenced by the space and form unique rhythm modified every moment in the stream of time. Moreover, it cannot be identically replicated or repeated. For this, the combination and detachment of time and space of screen and performance brings dramatic expansion of experience and sentiment on the subjective time and space of the audience.

Concept, Direction: KIM Sook Hyun & CHO Hye Jeong
Choreography: KIM Seung Hyun
Performance: KIM Seung Hyun, KIM Young Chae, JEON Woo Sang, JUNG Log Yee, YOO Seung Min

진달래 & 박우혁

예술공동체 진달래 & 박우혁은 사물과 현상의 질서, 규칙, 규범, 관습, 패턴에 대한 의문을 다양한 태도로 기록하는 가상이며 실제의 플랫폼 프로젝트 ‘아카이브 안방’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개인전 «구체적인 예»(2016),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2015), «Signal»(2014), 단체전 «APMAP»(2015), «Color Study»(2015)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움직이는 현재〉, 2016

진달래&박우혁은 집단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사회화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우리 사회가 인간을 사회성 유무로 가치판단하고, 개인의 욕망을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에 따라 조정하는 상황에 집중한다.

〈움직이는 현재〉는 작가의 이러한 여러 패턴과 층위로 나타나는 사회화의 현상을 시간, 운동, 구조가 결합된 현장을 통해 시각화한다.

구성, 연출: 진달래 & 박우혁

안무: 진달래 & 박우혁, 정언진, 송명규, 장홍석

출연: 진달래 & 박우혁, 정언진, 송명규, 장홍석 외

제작지원: 신익균, 김다겸

JIN Dallae & PARK Woo Hyuk

Art collective, JIN Dallae and PARK Woo Hyuk unravels the virtual and real platform project, ‘Archive Annyeong’, which records questions on object, rule of phenomenon, regulation, standard, custom, and pattern in various attitudes. Their major activities include solo exhibitions, “Concrete Case”(2016),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2015), and “Signal”(2014) along with group exhibitions, “APMAP”(2015), “Color Study”(2015) and more.

Moving Present, 2016

JIN Dallae & PARK Woo Hyuk are interested in the process of socializing man as a member of the collective. And they especially pay attention to how our society values men with social status and the situation adjusting personal desire to the expectations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Moving Present* visualizes the respective phenomenon of socialization appearing in various patterns and layers through the scene merged with time, movement and structure.

Concept, Direction: JIN Dallae & PARK Woo Hyuk

Choreography: JIN Dallae & PARK Woo Hyuk, JEONG Eon Jin,

SONG Myoung Gyu, JANG Hong Seok

Performance: JIN Dallae & PARK Woo Hyuk, JEONG Eon Jin,

SONG Myoung Gyu, JANG Hong Seok and others

Support: SHIN Ik Kyun, KIM Da Kyum

황수현

황수현은 춤을 추는 행위와 보는 행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한다. 최근 퍼포머의 행위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현상이 어떻게 힘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춤의 매체적 특징과 한계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Co-Lab:Seoul-Berlin>(2012) 공동작업, <저장된 실제>(2014), <For it to end>(2015), <숨겨진 연결>(2015) 등이 있다.

〈아이 원트 투 크라이, 벗 아임 낫 새드〉, 2016

감정은 신체와 정신의 연결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개인의 체화된 감정 정보는 외부자극으로부터 시작하여 내부자극을 일으키며 동일한 수행성으로 나타난다. 이 작업은 개인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있는 감정을 구조화하면서 개인의 감정이 그 구성원과 환경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안무: 황수현

수행자: 강호정, 황다솜, 최승윤, 최민선, 마광현, 최영탁, 현지에, 임정하

음악: 남상원

의상: 청페페

기록: 이진명

HWANG Soo Hyun

HWANG Soo Hyun works with interest in the cognitive aspect occurring in between the gesture of dancing and the gesture of seeing. Currently, HWANG studies the features of the medium of dance and its limitations with the question, ‘how could invisible phenomenon operate with power?’ occurring in the gesture of performer. HWANG’s major works include *Co-Lab:Seoul-Berlin*(2012) as collaborative work, *Stored Reality*(2014), *For it to end*(2015), *Hidden Connection*(2015) and etc.

I want to cry, but I’m not sad, 2016

Emotion is used as a method to enable connection of the body and mind. And the embodied information of individual’s emotion begins with the exterior stimulation, arousing interior stimulation and appears as identical performativity. This work structuralizes emotion, which is recognized as the private realm, and intends to question how personal emotion is related to the environment of the individual.

Concept, Choreography: HWANG Soo Hyun

Performer: KANG Ho Jung, HWANG Da Som, CHOI Seung Yoon, CHOI Min Sun, MA Kwang Hyun, CHOE Young Tak, HYUN Zi Yea, LIM Jung Ha

Music: NAM Sang Won

Costume Design: Chungpepe

Documentation: LEE Jin Myung

김늬연 & 전용완

김늬연, 전용완은 문학과 미술을 공부했고, 언어를 재료로 작업하고 있다.

〈문학적으로 걷기〉, 2016

〈문학적으로 걷기〉는 안무가를 통해 퍼포먼스로 번역된 여섯 편의 ‘스코어-시(Score-poetry)’ 연작이다. 문학사를 따라 주요 작가와 작품을 정하고, 선정한 작가나 작품에 관한 ‘걸음’을 고안한다.

KIM Nui Yeon & JEON Yong Wan

KIM Nui Yeon & JEON Yong Wan studied literature and art and works with language as the medium.

Literary Walks, 2016

Literary Walks is a series of 6 ‘score-poetry’ translated in performance by a choreographer. They select major writer and work following the history of literature and design the ‘walk’ on the selected writer and the work.

김보라 & 김재덕

김보라는 컨템퍼러리 댄스를 중심으로 장르와 공간의 개념을 허물면서 실험적인 작업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그룹 ‘아트프로젝트 보라(Art Project BORA)’의 대표로, 그로테스크한 미학, 영화적 안무 연출 등을 통해 장르 융합적이며 감각적인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김재덕은 ‘모던테이블(Modern Table)’을 이끌며 곡선적이면서도 빠르고 강한 동작과 함께 한국적 요소를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해왔다. 이들 두 그룹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꼬리언어학〉, 2016 / 김보라

고양이의 꼬리언어와 제스처의 상징체계에서 움직임의 모티브를 포착한 〈꼬리언어학〉은 위선적인 교양주의와 언어의 해석적 오류를 풍자하는 작품이다. 꼬리언어에서 보듯 선과 면, 또는 선과 도형의 교차와 같이 구조적이고 기호학적인 움직임들을 재조합하고 해체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말과 글보다 더 원초적이고 더 명징한 몸의 언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Breathing Attact〉, 2016 / 김재덕

이 작품은 호흡과 타격을 질료로 하여 힘과 선의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무용수와 무용수가 호흡으로 관계를 맺고 호흡으로 헤어진다. 약 1초 안에 재빠르게 여러 동작을 해내기도 하며, 힘든 와중에도 순간의 호흡을 이용하여 몸을 정지시키기도 한다. 몸에 대한 집중을 통해 관객과의 자연적 관계를 도모한다.

〈괘락의 정원〉, 2016 / 김보라

16세기 히에로니무스 보슈의 삼면화 〈괘락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김보라와 미술작가 신제현이 공동 작업한 미디어 퍼포먼스이다. 마치 삼면화의 형식처럼 무용수 3인의 짧은 퍼포먼스로 이루어지는데, 폐쇄회로 카메라, 실시간 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 장치를 통해 기괴하고 초현실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인간의 몸과 감정, 움직임, 뇌파, 체온 등의 정보가 비선형적 사운드와 빛을 만들고 이 과정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된다.

KIM Bora & KIM Jae Duk

KIM Bora is a director of ‘Art Project BORA’, a project group that conducts experimental work demolishing the concept of genre and space with contemporary dance at its core. This group presents sensuous works of integrated genre through grotesque aesthetics, cinematic direction of choreography and etc. KIM Jae Duk leads ‘Modern Table’ and has attempted works that reinterpret Korean elements in contemporary aspect with strong, rapid and curvilinear movements. These two groups tour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Asia, Europe and Latin America.

Tail Linguistics, 2016 / KIM Bora

Tail Linguistics took the motif from the symbol system of cat’s tail language and gesture, and it satirizes the interpretational error of language and hypocritical culturalism. As seen from the tail linguistics, it reveals the process of reassembling and disassembling semiotic, structural movements like the intersection of line and surface or line and shape. Through this, the language of body, more primitive and lucid than language and text, is raised to the surface.

Breathing Attact, 2016 / KIM Jae Duk

This work creates diversity of power and line with breath and blow as the material. A dancer and another dancer enters into relationship and parts with breathing. They rapidly perform number of movements in about a second, and stop the body using instant breath while in difficult situation. This piece creates natural relationship with the audience through the concentration on the body.

Garden of Earthly Delights, 2016 / KIM Bora

This is a media performance of KIM Bora and visual artist SHIN Jae Hyun, inspired by the 16th century triptych, *Garden of Earthly Delights* by Hieronymus Bosch. This piece includes brief performances of the three dancers as if mirroring the form of triptych, and it presents uncanny and surreal performance through closed-circuit camera, live broadcast and various other media equipment. The body and emotion of human being, movement, brainwave, body temperature and other information create nonlinear sound and light, and the respective process is aired online through live broadcast.

이재영

이재영은 전문적인 동작과 비전문적인 움직임을 혼합시키며 몸의 질감을 새롭게 발견한다. 농구 경기에서 움직임을 차용한 <휴식>(2011), 힙합 동작을 놀이로 전환시킨 <이퀄리브리엄>(2014) 등의 작업으로 국내외에서 주목 받았다. 2013년 ‘시나브로 가슴에’를 창단하여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시도하고, 도전적이면서 모험적인 안무 작업을 즐기고 있다.

<디너>, 2016

이 작품에서 다양한 일상적인 소품들의 배치는 정교한 듯하지만 미처 예상치 못한 사건을 야기한다. 무용수가 계기가 되어 물건들이 반응하며, 물건에서 무용수로, 무용수에서 물건으로 반응하여 서로 영향을 주며 움직임과 사물들이 서로에게 계속하여 관계를 가진다. 음식을 먹는 것은 가장 본능적인 인간의 행위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학습된 형태로 식사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된 행위에서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을 본다.

LEE Jae Young

LEE Jae Young intermixes professional movement and unprofessional movement to newly reveal the texture of the body. LEE has receiv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with works like *Rest*(2011), which appropriated the movement of basketball play and *Equilibrium*(2014) that conversed hip-hop movement into play. LEE had attempted collaboration with various genres by establishing the company SIGA in 2013 and continues to enjoy experimental and choreographically challenging works.

Dinner, 2016

The juxtaposition of various ordinary objects in this work seems sophisticated, but it raises unexpected incident. The objects respond with dancers as momentum, and from objects to dancers to dancers to objects, they create interactive influences on each other while having constant mutual relationship between movement and objects. Eating is the most instinctive behavior of human beings. However, today we eat in a learned form. Nevertheless, we see the instinctive aspects of men in these learned behaviors.

<포리언어학>, 2016

안무: 김보라
미술: 신재현
무브먼트 리서처: 김보라, 박상미, 최소영, 이혜지, 윤선지
음악: 김재덕
의상: 최인숙
조명: 이승호
프로듀서: 이미진
매니저: 마윤하

<Breathing Attact>, 2016

안무: 김재덕
출연: 김재덕, 이정인, 김래혁
음악: 김재덕
연주: 허성은, 한림
의상: 최인숙
조명: 이승호
프로듀서: 전은지

<궤락의 정원>, 2016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보라
미술: 신재현
안무: 박상미, 양지연, 안현숙
프로듀서: 이미진

Tail Linguistics, 2016

Choreography: KIM Bora
Visual Art: SHIN Jae Hyun
Movement Researcher: KIM Bora, PARK Sang Mi,
CHOI So Young, LEE Hye Ji, YOON Sun Ji
Music: KIM Jae Duk
Costume Design: CHOI In Sook
Lighting Design: LEE Seung Ho
Producer: LEE Mi Jin
Manager: MA Youn Ha

Breathing Attact, 2016

Choreography: KIM Jae Duk
Performance: KIM Jae Duk, LEE Jung In, KIM Lae Hyuk
Music: KIM Jae Duk
Instruments: HEO Seong Eun, HAN Lim
Costume Design: CHOI In Sook
Lighting Design: LEE Seung Ho
Producer: JEON Eun Ji

Garden of Earthly Delights, 2016

Creative Director: KIM Bora
Visual Art: SHIN Jae Hyun
Choreography: PARK Sang Mi, YANG Ji Yeon, AHN Hyun Sook
Producer: LEE Mi Jin

연출, 출연: 이재영, 신재호

Concept, Direction and Performance:
LEE Jae Young, SHIN Jae Ho

태이

태이는 일상의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언어와 공간의 시적, 정치적 충돌에 관심을 가지고 설치, 사운드, 퍼포먼스, 텍스트 등의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한 작업을 하고 있다. 문학과 미디어를 전공하였으며 더블린 대학교에서 ‘번역하는 공간과 이동의 미학 (A House of Translating Space: Aesthetics of Migration)’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코 미술관 인사미술공간, 트렁크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그 밖의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 및 미술활동에 참여했다.

〈잠물결〉, 2016

다매체 작업, 〈잠물결〉은 내밀한 사적 공간과 불안한 공공의 공간에서 잠을 청하는 도시의 이웃들의 시간을 보여준다. 물 위에 흘러오는 잠의 공간과 불면자, 실험적인 음악과 사람들의 뒤척이는 움직임들로 이루어진 작업이다. 생산과 노동을 반복하는 수면부족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위태로운 휴식과 다양한 형태의 사적인 공간을 재현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만드는 청각적, 시각적 재생과 심표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구성 및 연출: 태이
작곡: 최강희
출연: 목소희, 박한결, 김지민, 김건중, 정수영, 이상유, 김보영 외

Taey lohe

Taey is interested in the poetic and political collision of language and space occurring in the everyday life and utilizes various media including installation, sound, performance, text and etc. in the work. Taey majored in literature and media and received doctoral degree at Dublin University with the thesis, ‘A House of Translating Space: Aesthetics of Migration’. Taey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Arko Art Center, Insa Art Space and Trunk Gallery and also participated in numerous international group exhibitions and artistic activities.

Flux of Sleepings, 2016

A multimedia work, *Flux of Sleepings* demonstrates the time of neighbors in the city sleeping in the intimate private space and insecure public space. It is a work formed with the space of sleep, sleepless one floating upon water, fluttering movements of people and experimental music. It is to reproduce various forms of personal space and insecure rest of people who live within the sleepless city of repetitive production and labor and to remind the auditory and visual reproduction and rest created together with the particip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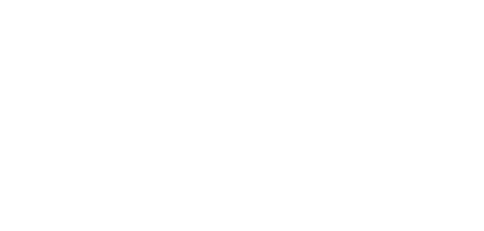
Concept, Direction: Taey lohe
Music: CHOI Kang Hee
Performance: MOK So Hee, PARK Han Kyul, KIM Ji Min, KIM Keon Joong, JUNG Soo Young, LEE Sang Eu, KIM Bo Young and others

김정선 & 마티아스 에리안

김정선은 공연예술작가로 2007년부터 베를린에 거주, 무용, 연극, 실험음악 공연에서 몸을 중심으로 하여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제3의 몸, 즉 공간의 관계와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몸을 이해하면서 여러 작가들과 콜렉티브 형식의 협업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마티아스 에리안과 세 번째 협업으로 베를린에서 2015년부터 〈작동을 위한 솔로〉, 〈EX IST〉를 함께 작업하고 있다. 마티아스 에리안은 일렉트로 어쿠스틱 작곡(Electro acoustic composition)을 전공하고 베를린, 빈, 서울을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특히 무용 및 영상예술가와 협업한다. 자신의 오디오 소스를 여러 개의 채널을 통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키며 소음과 소리 사이의 복합적인 재생 방법으로 그 과정을 전개한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와 충돌, 그리고 전통적 조화를 그만의 음악적 개념으로 발견한다.

〈풍경 없는 지역〉, 2016

풍경이란 감상의 대상이 되는 그 무엇을 전제로 발생한다. 이 작업은 감상보다는 체감으로, 시각보다는 촉각이 발동하는 영역으로 나아간다. 몸과 소리가 반복을 통해 발생시키는 현상과 감각들을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작동시키면서 공간과 인간, 대상과 주체의 관계를 변형시키고 규정된 맥락을 재맥락화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또한 장소의 고유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지워지고 배치된 물질의 특성이 변화하며 새로운 장소성이 생성되는 예기치 않은 순간들을 탐색한다. 이 작품은 라이브 스트림을 통한 사운드의 계기, 퍼포머와 관객의 상태, 그들이 맺는 관계에 따라 어떤 곳도 그들의 공간이 된다. 결국 이 작업에서 설정된 미술관 내 세 구역들은 기존의 인식 너머의, 낯설고도 동요되는 공간으로 전환된다.



안무: 김정선
음악, 인스톨레이션: 마티아스 에리안
드라마투르기: 콘스탄자 세로우
출연: 안현숙, 김정선, 나경호
의상: 임선열

KIM Jung Sun & ERIAN Matthias

KIM Jung Sun lives and works in Berlin since 2007 as performance artist who works with a collective of different artists. KIM performs dance, theater and experimental music with body as the center and understands the third body created within this process,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with space and timely concept. The recent project with ERIAN Matthias is their third collaboration and they have been working on *Solo for operation and EX IST* since 2015. ERIAN Matthias had majored electro acoustic composition and divides his career among Berlin, Vienna and Seoul collaborating with dancers and video artists. ERIAN develops his own audio source through number of channels in contrasting methods while unfolding the process in complex regenerating method between noise and sound. In addition, he discovers his own musical concept in the following difference and collision, and traditional harmony.

There is no landscape, 2016

Landscape occurs with the premise of the object of appreciation. This work moves forward to the realm where sense of touch is exercised than the visual and experience rather than appreciation. By operating phenomenon and sense incurred through the repetition of body and sound in time lag, it transforms the relationship of space and human, object and subject and reveals the procedure of re-contextualizing regulated context. The elements compo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are effaced, the features of placed material alternate and thus explore the unforeseen moments, producing new spatiality. Any place becomes the space of their own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established between performer and audience, the state of performer and audience and the opportunity of sound through live stream. At last, the three designated spaces within the museum for this work are transformed into the unfamiliar, unrest space beyond the existent awareness.



Choreography: KIM Jung Sun
Music, Installation: ERIAN Matthias
Dramaturgy: SCHELLOW Constanze
Performance: AHN Hyun Sook, KIM Jung Sun, NA Kyoung Ho
Costume Design: LIM Sun Yeol

관람시간

화, 목, 금, 일: 10am - 6pm

수, 토: 10am - 9pm

매주 월요일 휴관

*여름특별시즌 야간개장 운영

(2016.7.28-8.28, 수, 목, 금, 토 10am-9pm)

입장료

서울관 단일 관람권: 4,000원

수,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6pm-9pm)

주차

운영시간(매일): 8am - 11pm

시간당 2,000원

Museum Hours (General)

Tuesday, Thursday, Friday, Sunday: 10am - 6pm

Wednesday, Saturday: 10am - 9pm

Closes on Mondays

* Special Summer Season Extended Opening

(2016.7.28-8.28, Wed, Thu, Fri, Sat 10am-9pm)

Admission Fee

MMCA Seoul single-day ticket 4,000 won

Wed.Sat Free admission on

extended opening hours (6pm - 9pm)

Parking

Daily Hours: 8am - 11pm

2,000 won per hour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30(소격동165)

TEL 02 3701 9500

www.mmca.go.k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EL 02 3701 9500

www.mmca.go.kr

국립현대무용단

06767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4층

+82 2 3472 1420

www.kncdc.kr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Opera House 4fl. Seoul Arts Center,

Nambu Loop Line 2406,

Seocho-gu, Seoul, Korea 06757

+82 2 3472 1420

www.kncdc.kr



후원 Sponsors



공동주최 Co-Organizers

